

2018년 8월 28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상승 트럼프, “멕시코와 무역협상 합의 도출”

### 완화되는 무역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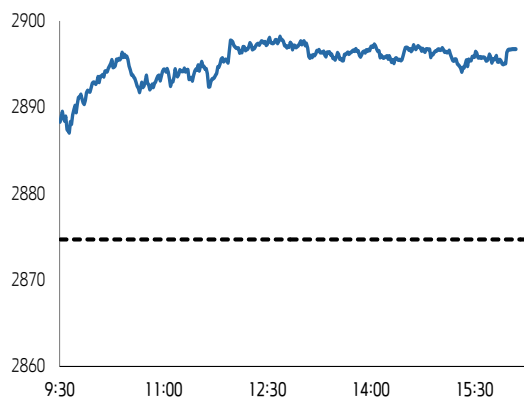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간 무역 협상을 맺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도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 특히 긍정적인 무역분쟁 관련 소식으로 경기 민감 업종인 금융, 산업재, 소재 등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반도체 업종은 업황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감(다우 +1.01%, 나스닥 +0.91%, S&P500 +0.77%, 러셀 2000 +0.13%)

2018 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 변수 중 하나는 무역분쟁. 시장 참여자들은 관세의 영향이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에 주목.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 이런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던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중국과 무역분쟁 관련 지난 22~23 일 차관급 회담 결과 미국 언론들은 “의미 없었던 회담” 이었다고 보도.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지속해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주장하며 미-중 무역분쟁 해소 가능성이 제기. 특히,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절하 제한을 발표하는 등 미국이 요구했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 발표 이후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분쟁 합의 도출을 했다” 라고 언급한 데 힘입어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무역분쟁 이슈가 하나 둘씩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우호적인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별도의 합의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분쟁 합의 이후 EU 와 자동차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EU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했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9.30	+0.27	홍콩항셱	28,271.27	+2.17
KOSDAQ	801.04	+0.35	영국	7,577.49	휴장
DOW	26,049.64	+1.01	독일	12,538.31	+1.16
NASDAQ	8,017.90	+0.91	프랑스	5,479.10	+0.86
S&P 500	2,896.74	+0.77	스페인	9,659.80	+0.73
상하이종합	2,780.90	+1.89	그리스	736.27	+1.58
일본	22,799.64	+0.88	이탈리아	20,797.82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강세 지속

AMD(+5.34%)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최신 GPU를 발표한 이후 급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여파로 쏜터버링이 급격히 유입된 점도 상승폭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장 후반 장중 10% 넘던 상승폭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축소되었다. 한편, N비디아(+1.3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이크론(+2.70%), 인텔(+1.45%), 브로드컴(+1.90%) 등 반도체칩 제조업체들은 데이터센터 급증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57% 상승 했다.

화이자(-1.90%)는 1차 임상 시험 결과 발표 이후 하락했다. 양호한 임상시험이었으나 경쟁사인 Alnylam Pharma(+16.23%)의 결과에 비해 좋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된 여파다. US스틸(-0.94%)은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낙폭이 축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AK스틸(+2.80%)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JP 모건(+1.77%), 골드만삭스(+3.19%) 등 금융주 및 보잉(+1.25%), 캐터필라(+2.77%) 등 산업재, GM(+4.84%), 포드(+3.20%) 등 자동차업종도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4%	대형 가치주 ETF	+0.66%
에너지섹터 ETF	+0.64%	중형 가치주 ETF	+0.42%
소매업체 ETF	-0.71%	소형 가치주 ETF	-0.04%
금융섹터 ETF	+1.35%	배당주 ETF	+0.20%
기술섹터 ETF	+0.92%	변동성 ETF	+0.31%
소셜 미디어업체 ETF	+1.94%	대형 성장주 ETF	+0.77%
인터넷업체 ETF	+0.95%	중형 성장주 ETF	+0.70%
리츠업체 ETF	-0.15%	소형 성장주 ETF	+0.40%
주택건설업체 ETF	+0.59%	신흥국 고배당 ETF	+1.25%
바이오섹터 ETF	+1.7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93%
헬스케어 ETF	+0.36%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82%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1.56%	Long/short ETF	-0.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2.44	+0.74%	+2.72%	-3.25%
소재	375.85	+1.47%	+1.93%	+1.29%
산업재	650.79	+1.22%	+1.09%	+2.91%
경기소비재	919.46	+0.70%	+2.13%	+4.33%
필수소비재	554.34	+0.07%	-1.70%	+1.32%
헬스케어	1,064.54	+0.34%	+0.79%	+4.56%
금융	474.04	+1.34%	+1.22%	+1.50%
IT	1,313.30	+0.96%	+2.83%	+5.93%
통신	157.19	+0.37%	-0.44%	+4.27%
유틸리티	269.55	-0.64%	-1.70%	+1.60%
부동산	206.52	-0.08%	-1.21%	+3.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MSCI 한국 지수는 1.03% MSCI 신흥 지수도 1.4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80 계약)에 힘입어 1.35pt 상승한 298.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9.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23 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이후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1~2%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미국 언론들은 관련 협상에 대해 의미 없었던 회의라고 평가 절하 했으나, 중국 상무부가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점이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타결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캐나다 외무부가 “미국-멕시코 무역 협정은 캐나다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에 서명 할 필요가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점도 우호적이다.

한편, 미 증시에서 N 비디아에 이어 AMD 가 데이터센터 관련 GPU 를 발표한 이후 관련 기업들이 급등 중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7% 상승 하는 등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다. 이와 함께 멕시코와 미국의 무역분쟁 합의 소식은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있어 관련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

7 월 시카고 국가 활동지수는 전월(0.48) 보다 둔화된 0.13 으로 발표되었다.

8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32.3) 보다 둔화되었으나 예상치(29.0) 보다는 개선 된 30.9 로 발표 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3.3→23.9)와 설비가동률(25.0→25.2)은 개선되었다.

독일 8 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101.7)이나 예상치(101.9) 보다 개선된 103.8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약세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OPEC-비 OPEC 모니터링 위원회는 이날 각국의 쿼터합의 이행률에 대해 109%라고 발표 했다. 다만, 이행률은 5 월(147%), 6 월(120%)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각국이 2 분기와 달리 산유량 감소를 이어가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상승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지수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는 등 개선된 경제지표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달러 약세 영향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여파로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멕시코 페소화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캐나다 달러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터키 리라화가 2%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러시아 루블화 등도 약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화 등 중남미 국가들의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이어졌다.

국채금리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했다. 한편, 미국 2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81 배) 보다 상승한 2.89 배를 기록하는 등 수요 증가가 이어졌으나 국채금리 상승세를 줄이지는 못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구리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LME 시장은 휴장이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0%, 철근은 1.1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8.87	+0.22	+5.27	Dollar Index	94.741	-0.43	-1.21
브렌트유	76.21	휴장	휴장	EUR/USD	1.1682	+0.52	+1.74
금	1,216.00	+0.22	+1.79	USD/JPY	111.08	-0.14	+0.92
은	14.972	+0.48	+1.42	GBP/USD	1.2896	+0.39	+0.77
알루미늄	2,030.00	휴장	휴장	USD/CHF	0.9794	-0.42	-1.23
전기동	5,926.00	휴장	휴장	AUD/USD	0.735	+0.29	+0.14
아연	2,389.50	휴장	휴장	USD/CAD	1.2961	-0.50	-0.66
옥수수	361.50	-0.34	-3.98	USD/BRL	4.0787	-0.63	+2.74
밀	522.50	-2.61	-7.11	USD/CNH	6.7963	-0.14	-0.57
대두	848.25	-0.82	-5.04	USD/KRW	1113.80	-0.46	-0.83
커피	105.75	+1.00	+4.75	USD/KRW NDF1M	1109.00	-0.41	-0.73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44	+3.43	+2.51	스페인	1.406	+1.60	+2.00
한국	2.364	-1.30	-4.10	포르투갈	1.828	+1.30	+4.20
일본	0.097	-0.40	-0.70	그리스	4.164	0.00	-13.10
독일	0.376	+3.10	+7.40	이탈리아	3.150	+0.50	+14.00